

### 2007년부터 체계적 귀농·귀촌정책... 체류형 농업창업도 지원



전북 고창군은 2007년 전라북도 지역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 체계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9141명의 도시민을 고창군으로 유치했다. 민간 단체인 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가 고창군 귀농

어·귀촌 종합지원센터로 지정돼 귀농·귀촌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고창군은 수년째 '귀농·귀촌 1번지'를 지켰다. 지난해 전북에 귀농·귀촌한 총 4285가구 중 20.1%인 862가구가 고창군에 새 터전을 잡았다. 고창군은 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해 고소득 창출을 위한 귀농·귀촌 교육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는 예비 귀농인들이 가족과 함께 일하기 간 머물면서 실습 등 체험을 통해 농촌을 이해

하고 적응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17년 8월쯤 준공된다. 고창군은 또 귀농·귀촌인들을 위해 임시 거주 시설을 마련해주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 상생하고 화합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에서 제2 인생을 설계하려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민우 조선비즈 기자



### '대한민국 녹색심포' 브랜드... 관광·휴양·건강 고루 체험



충북 단양은 소백산과 남한강을 대표 산수자원으로 하는 지역이다. 중부내륙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분기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 산악지역으로, 옛부터 '단양 팔경'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다. 단양은 이런 특성을 살려 2008년부터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편안한 휴식'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디자인한 도시 브랜드 '대한민국 녹색심포'를 사용하고 있다. 단양의 대표 레포츠인 남한강 래프팅은 가족, 직장 동료 등 단체 관광객들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양방산과 두산 패러글라이딩 체험은 대학생들이 즐겨 찾는 레포츠다. 단양군은 앞으로 아름다운



수양개길, 선암골 생태유람길, 짚라인과 에코어드벤처 등을 갖춘 만천하 스카이워크, 소백산자연휴양림, 도담지구 명소화사업도 차질 없이 완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수립한 체류형 관광지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따라 남한강변길 조성, 수상스키대회 유치, 선비 음악길 조성 등도 추진한다.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

충을 위해 관광명소 2곳에 퇴계 이황의 사랑 등을 주제로 하는 스토리텔링 미니공원을 조성한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단양군은 관광과 휴양, 건강을 고루 체험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민우 조선비즈 기자

### 아시아 최대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협곡열차 관광상품



경상북도 봉화군은 산림휴양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봉화군은 현재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조성하고 있다. 25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현재 시범 운영을 준비 중이다. 또 581억원을 들여 청량산과 낙동강 일대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밖에 만리산일대 산악레포츠단지조성사업에 100억원, 누·정휴문화누리사업에 414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높은 상태다. 춘양면 서벽리 일대에는 전국 최초의 산림탄소순환마을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다. 봉성면 장평리에는 경북 최초로 봉화목재문화체험장을 열었다. 봉화목재문화



체험장은 가족과 학생 관광객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백두대간과 낙동강 상류의 우수한 절경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는 백두대간 순환열차와 협곡열차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백두대간 협곡열차는 2015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봉화군은 다양한 산림보존정책과 산림

보존캠페인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매해 1200ha에 달하는 금가꾸기사업을 진행한다. '2015년 산불진화 경연대회'에서도 경상북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박노옥 봉화군수는 "산림자원이 미래국부의 원천이 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우수한 자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영 조선비즈 기자

### 평생학습도시 선정... 인문학 마을축제로 관광객 유치



경북 칠곡군은 2004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평생학습의 확대와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부터 인문학 아카데미, 칠곡 평생학습 인문학 축제와 같은 인문학 사업을 시작했고, 2013년부터는 '인문학마을축제'도 개최하고 있다. 인문학마을축제는 한해동안 진행된 인문학 마을살이를 통해 쌓아온 결과를 선보이는 자리다. 새로운 마을문화와 더불어 건강한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축제로, 진행과 기획도 각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맡는다. 지난해 축제에는 전통마을 종교의식인 천왕제 재연과 오동풍물단 공연, 단심줄 놀이, 3대 노래자랑 등을 진행했다. 칠곡군은 인문학 축제를 통해 관광객도 유치



하고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도 재고하는 등 두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10년 동안 이어온 성인문화교육 사업의 결과물로 250여명의 할머니들이 쓴 시 89편을 모아 '시가 뭐고' 시집을 출판했다. 시집은 출판한 지 2주 만에 1000권이 완판됐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칠곡군의 인문학 사업이 주민과 마을 중심의 공동체, 지역 사회, 외부 전문가, 공무원이 모두 한 뜻으로 노력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문학 사업과 연계된 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문화교육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용 조선비즈 기자

### "건강한 농산물로 소비자에 사랑받자" 토요일 마케팅



토요일에는 경상남도 의령군의 공동브랜드다. 토요일에는 토(土·흙토), 요(曜·빛날요), 애(愛·사랑애)가 결합된 브랜드로 '의령의 옥토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토요일은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의령군은 지리산 천왕생과 덕유산 참샘에서 발원된 남강과 강원 태백시 황지에서 발원된 낙동강이 합수되는 곳으로 우리나라 시설 채소의 대표적인 주산지다. 의령군은 토요일을 우리나라 농산물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2009년 유통전문화사 의령군토요일유통을 출범했다. 토요일유통은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방침



아래 농산물 판로 개척과 수출을 전담하고 있다. 의령군은 2018년까지 1000억원 매출 달성, 2020년까지 2000만달러의 수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령군은 건강하고 안전한 토요일농산물 공급을 위해 의령을 무전리로 전처리 시설, 비파괴선별기, 저온저장실을 갖춘 최첨단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과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에 맞는 개별급속냉동시설, 선별장, 저장시설을 갖춘 제2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또 수박, 파프리카, 양상추, 새송이버섯, 단감 등 신선농산물 20여종을 이마트와 농협유통, 롯데마트 등에 납품하고 있다. 의령군의 이같은 노력으로 토요일은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유통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조직에 선정됐다. 남민우 조선비즈 기자

### 주유·세차·정비서비스 제공... 리터당 20원 추가할인도



SK네트워크의 해피오토크는 우리나라 대표 차량관리 전문 회원제 서비스다. 주유·세차·정비 등 운전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2년 유료 멤버십 최초로 가입 고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3월 현재 해피오토크 유료 고객은 170만여명에 달한다.



해피오토크는 차량 및 운전 고객의 특성에 따라 5종의 멤버십을 제공한다. SK텔레콤과 제휴한 티 카라이프(T Carlife), 하나카드와 제휴한 클럽 SK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동부화재와 KB손해보험 등 보험사 고객을 위한 제휴 상품도 서비스 중이다. 해피오토크는 차량 및 운전 고객의 특성에 따라 5종의 멤버십을 제공한다. SK텔레콤과 제휴한 티 카라이프(T Carlife), 하나카드와 제휴한 클럽 SK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동부화재와 KB손해보험 등 보험사 고객을 위한 제휴 상품도 서비스 중이다.

서 기존에 보유한 여러 할인 카드들의 혜택에 더해 리터당 20원(LPG 플러스 고객은 리터당 30원)의 추가 할인을 받는다. 무료세차와 사고 시 긴급 출동, 주유 정비 할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제주도 여행 시 SK렌터카 75% 할인(비수기 기준), SK와이비스 흡연기 무료 관람, 사진 인화 할인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즐길 수 있다. SK네트워크는 지속적인 제휴 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통해 운전고객들의 만족도를 한층 높여갈 계획이다. 향후 차량 구매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해피오토크는 "올 하반기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아 조선비즈 기자

### 68개 도시 850여매장... 세계 첫 '콜 마이 네임' 서비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999년 7월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을 시작으로 성장을 거듭해 현재 전국 68개 도시 850여 매장을 직영하고 있다. 40년 이상의 전문적인 로스팅 기술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차별화된 커피를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게 특징이다.



스타벅스는 세계 최대의 공정 무역 인증 커피 구매 기업으로, 전세계 커피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자체 원두 구매팀이 커피 원산지를 직접 찾아가 최고급 아라비카 원두만을 엄선해 구매한다. 자체 로스팅 기술로 각 원두가 가진 최상의 풍미를 이끌어내 각국의 소비자에게 선보인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업계 최초로 충전

식 선불카드 모바일 결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전세계 스타벅스 최초로 이름을 호명해주는 '콜 마이 네임' 서비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나만의 음료'를 저장해 음료를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 '사이렌 오더' 서비스도 도입했다. 사이렌 오더는 현재까지 330만건에 달하는 이용 횟수를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원두 선별 및 로스팅 노하우, 체계적인 바리스타 양성 시스템은 스타벅스의 핵심 역량으로, 전국 모든 매장에서 숙련된 바리스타들이 하루 평균 35만여명 이상의 고객들에게 열정적인 서비스와 최고 품질의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해용 조선비즈 기자